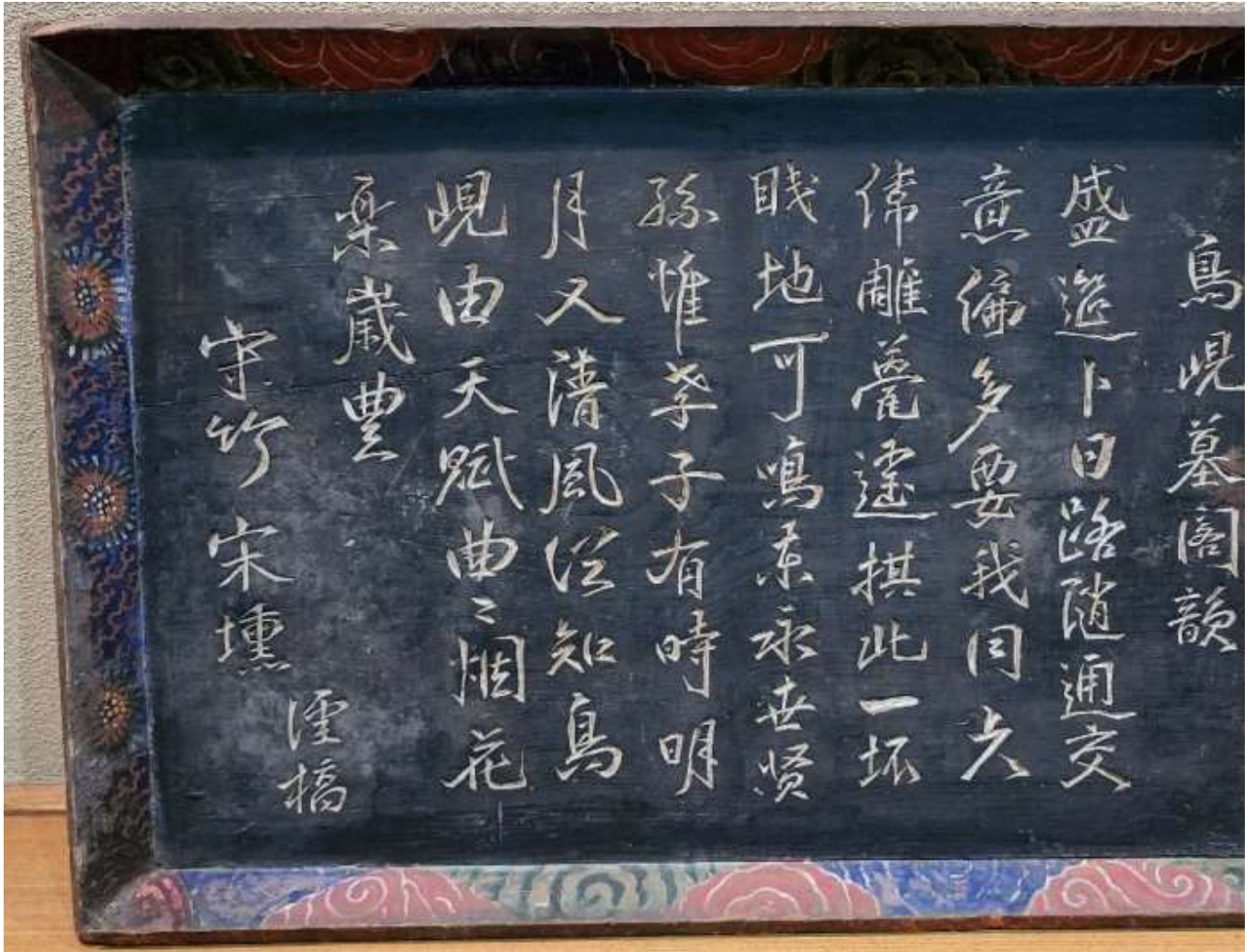


독립운동가 송진우 부친 송훈이 쓴 '시판' 일본서 귀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4.06.19 17:31 수정 : 2024.06.19 17:31



송훈의 조현묘각운 시판. 국가유산청 제공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송진우(1890~1945)의 부친으로 신식 학교인 담양학교를 설립한 송훈(1862~1926)이 쓴 시판(詩板)이 일본에서 돌아온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9일 도쿄에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일본 사무소에서 소장자 김강원씨로부터 '조현묘각운'(鳥峴墓閣韻) 시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시판은 시문(詩文)을 써넣은 현판이다. 가로 50cm, 세로 34cm 크기의 현판에는 전

남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에 있는 옛 지명 '조현(鳥峴)'에 묘각(무덤 옆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을 기념해 후손이 번창하길 축원하는 칠언율시가 적혀 있다.

"성대한 잔치 날 잡으니 길도 따라 열리고/우정 깊으니 나와 함께 하자 하네/상량(上樑) 올려 용마루 멀리 북쪽 향하고/자그마한 산소는 우리 동방 울릴만하니/대대로 어진 손자, 효자가 날 것이고/때때로 밝은 달에 맑은 바람 불어오네/조현(鳥峴)이 천부임을 이를 통해 알겠으니/굽이굽이 안개꽃에 풍년을 즐기리"

시문 끝에는 '수죽 송훈이 삼가 쓰다'(守竹宋壘謹稿)라고 작자가 명시돼 있다. 바탕판과 테두리를 갖춘 전형적인 조선 후기 현판으로, 좌우와 상하 테두리에는 각각 국화무늬와 구름 문양이 그려져 있다.

'고하 송진우 평전'(1990)에 따르면 송훈은 사재를 털어 담양학교를 설립하고, 아들 송진우를 담양군 창평에 있는 영학숙에 보내 신학문을 배우게 한 선구적인 인물이다.

국가유산청 제공일본에서 고미술 거래업체 '청고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재단으로 직접 연락해 기증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2022년에 '백자청화김경온묘지'와 '백자철화이성립묘지'를 기증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김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기증받은 시판은 내달 중 국내로 들여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한 뒤 추후 전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